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7학년도 11월 07일 1교시	출제자	송현호, 강아연, 이승진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OMR카드에 작성하세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헤리 :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재수가 없지? 같이 떠들어도 나만 걸려서 혼나고.

인선 : 그야 당연하지.

헤리 : 무슨 소리야?

인선 : 넌 목소리가 뭐랄까…… 좀 튀어. 어른들 표현대로 하자면 질그릇 깨지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같이 떠들어도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헤리 : 뭐? 뭐 깨지는 소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러는 네 목소리는 좋은 줄 알아?

인선 : 거기서 내 목소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데? 생각해서 알려 주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나)



(다) 친구 : 너 이번 중간고사 성적 많이 올랐다면서. 정말 좋겠다.

나 :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 지난 번에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조금 오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능 지수가 높아서 효과가 빨리 나타난 것도 있고. ㉢너는 수업 시간에 자주 었드려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친구 : 어떻게 해서 성적이 올랐니?

나 :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정리하면서 꾸준히 공부했어. ㉤너도 다음 시험에는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란다.

1. (가)와 (나)에 나타난 인물의 대화 방식에 드러난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헤리- 자신에게 충고하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 ② 정만 아빠- 피곤한 아들에게 눈치 없이 말하고 있다.
- ③ 헤리-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④ 정만-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 ⑤ 인선-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2. (다)의 ㉠~㉤ 중 전통 말 문화를 반영하지 않은 대화 두 개를 고르면?(4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전통 말 문화를 고려한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겸양적 표현을 사용한다.
- ②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 ③ 논리적 화법으로 상대방의 문제점을 충고한다.
- ④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생각해 본다.
- ⑤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을 되도록 낮추어 표현한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산속에 살면서 바둑 두기와 통소 불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람결에 들으니 상공께서도 나와 같이 풍류를 즐기신다 하더군요. 상공의 숨씨를 한번 뵈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상공은 대적할 사람을 찾지 못해 늘 아쉬워하던 터라, 박처사의 말을 듣고 마치 신선을 만난 듯 가슴에 기쁨이 넘쳐 흘렀다.

“신선과 인간의 길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찾아 주시니, 반가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숨씨로 어찌 신선과 바둑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신선의 통소 소리에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 지나치십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공의 재주를 보여 주시지요.”

(나) ‘객’ 이 ‘나’ 의 글 숨씨를 칭찬하며 과거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객: 그대는 이미 급제하였소?

☞ 뒷면에 계속

나: 아닙니다. 과거 공부는 꽤 괴롭지요. 일찍이 향시(鄕試)에서 한 번, 지방에서 치르는 생원과 진사 시험에서 두 번 장원을 했습니다. 초시(初試)에서 세 번을 급제했으나, 복시(覆試)에서는 매번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향시는 쉽지 만 한양에서 치르는 과거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객: 아! 그대의 재주로도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다니 요!

나: 내 진정 실력이 없어서이지요. 정말 글재주가 있다면 어찌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겠습니까?

객: 허, 그렇지 않소. 과거 시험의 비리가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었지요. 권문세가의 자손은 갓 공부를 시작한 어린애라도 다 시험에 합격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골 유생은 머리가 세도록 공부한 대가(大家)라도 오히려 시험에서 떨어지곤 했지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백과 두보에 버금가는 글재주를 지녔으니, 대과(大科)라면 몰라도 어찌 소과(小科)에 합격하지 못하였겠소?

(다) 지방 관직으로 나가는 김이소가 정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있다.

정조: 경은 이번에 지방 관직으로 나가면 잠깐의 휴가를 얻는 격이겠지만 내 마음은 매우 서운하오.

김이소: 이러한 때에 하직 인사를 올리게 되어 몹시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조: 황해도와 평안도가 근래에 형편이 매우 나빠졌다고 하니, 경은 반드시 고질적인 폐단을 없애는 정사(政事)를 유념(留念)하여 시행하시오.

김이소: 신의 기량이 너무 모자라서 그동안 역임한 직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직책은 신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조: 황해도와 평안도는 본디 무사(武士)가 많은 곳이라 일컬어지오. 그래서 이전부터 이따금 별군직(別軍職)에 등용된 자가 있었소. 경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을 두루 찾아서, 만일 합당한 자가 있으면 휘하에서 일을 시켜 보아 등용할 만한지를 알아본 다음에 올려 보내는 것이 좋겠소.

김이소: 성상(聖上)의 하교(下敎)대로 하겠습니다.

정조: 이밖에 별도로 경에게 할 말은 없으니, 가서 편안히 지내도록 하오.

(라) 정약용이 지인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 1: 아무개는 권세는 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니 분통이 터져.

정약용: 사람은 품평할 수 없으니 별로 술을 드립니다.

사람 2: 저 말은 짐도 지지 못하면서 먹이만 축내는구나!

정약용: (별주를 주면서) 짐승도 품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3: 어떤 것도 품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약용: 하루 종일 품평하여도 화낼 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주변에 있는 바위를 사람들에게 실컷 자랑했다.

사람 4: 화낼 줄 모르니 바위는 마음대로 품평할 수 있단 말ियो?

정약용: 저는 칭찬만 했지 나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니다.

4. 말에 관한 속담 중 그 의미가 다른 것은?(3점)

- ①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 ②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 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5. (가)에 나타난 전통 말 문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핵심 내용만 간단히 요약해서 전달한다.
- ② 상대방의 단점을 꼬집어 이야기 하고 있다.
- ③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 집중한다.
- ④ 상대방의 지위와 나이를 고려하여 말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때에는 돌려서 말한다.

6. (가)~(라)의 대화를 읽고 전통적인 말 문화에 대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옳은 것 두 개를 고르면?(4점)

- ① 상민: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정중함을 갖추어 말했군.
- ② 장훈: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어.
- ③ 수근: 상대방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에는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람직하구나.
- ④ 희철: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예의바르게 말해야 하는군.
- ⑤ 경훈: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때에는 부득이한 상황을 설명하며 직접적이고 분명한 태도로 말해야 해.

7. (나)와 (다)에서 말을 사용하는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옳은 것은?(3점)

		상황	말을 사용한 방식
다	①	‘정조’가 ‘김이소’에게 명을 내릴 때	상대방에게 부탁할 말을 바로 이야기함.
	②	‘김이소’가 ‘정조’의 명을 받아들일 때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며 말함.
나	③	‘객’이 ‘나’를 칭찬할 때	상하관계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임.
	④	‘나’가 ‘객’의 칭찬을 들었을 때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의 장점을 이야기 함.
	⑤	‘객’이 ‘나’를 칭찬할 때	당시 과거 시험의 비리를 한탄함.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7학년도 11월 07일 1교시	출제자	송현호, 강아연, 이승진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신문왕이 한여름에 높고 밝은 방에 거처하면서 ㉠설총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오래 내리던 비가 비로소 개고 바람이 시원하구나. 비록 맛있는 음식과 애절한 음악이 있다 할지라도, 고상한 담론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 하겠느냐. 그대는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나를 위하여 말해 주지 않는가?”

“예. 신이 예전에 꽃의 왕인 ㉡모란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나) 이 왕을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을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왔지요. 혹시 시간이 늦지나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배알하려고 하였습니다.

(다) 홀연히 붉은 얼굴, 옥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은 이 하나가, 간들간들 걸어와 암전하게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첨은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 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왕의 홀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라) 또 한 사내가, 배웃에 가죽 띠를 매고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힘없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 밖의 한길 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의 빗갈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생기는 것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할지라도,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약이 있어서 기운을 돋우고,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사마(絲麻)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관괴(管藎)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서, 모든 군자는 만에 하나 결핍에 대비해야 한다 하였습지요.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 그러자 어떤 이가 꽃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붙들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

‘㉩사내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여쁜 여자는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자 사내가 왕 앞에 다가섰습니다.

‘저는 ㉪대왕이 총명하여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알고 왔더니, 지금 보니 그렇지 않군요. 무릇 임금 된 사람치고 간사한 자를 가까이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맹자는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으며, ㉭풍당은 낭서 정도로 지내다 흰머리가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도리가 이러하였거늘 저인들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잘못했노라.’

(바) 이렇게 대답하였다는군요.”

이에 ㉮신문왕이 얼굴빛을 바로 하며 말했다.

“㉯그대의 우화(寓話)는 진실로 깊은 뜻이 담겨 있도다. 기록해 두어 왕이 된 자의 경계로 삼기 바란다.”

마침내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하였다.

8. (가)~(바)의 서술 상 특징으로 옳은 의견 두 개를 고르면?(4점)

① 지훈-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사를 표현했군.
 ② 우진-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있어.
 ③ 지성-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 진솔하게 표현 했어.
 ④ 재환-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여 서술하고 있네.
 ⑤ 대휘-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유적 방법에 의하여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9. 문맥으로 보아 성격이 **다른** 것은?(3점)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4점)

① ㉦-자신에 대한 임금의 칭찬에 겸손하게 응대하고 있다.
 ② ㉧-꽃의 왕으로 어떤 일이든 최고가 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③ ㉨-신라의 왕을 나타내며 충신을 몰라보고 있다.
 ④ ㉩-대조적 인물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깨우침을 얻는다.
 ⑤ ㉪-왕에게 간신을 멀리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다.

11. ‘할미꽃’의 말하기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2점)

① 임금에게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임금의 명에 따르고자 하는 충신의 자세가 담겨 있다.
 ③ 임금이 스스로 총명함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④ 고사를 인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으로 높이고 있다.
 ⑤ 임금의 마음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12. ㉬와 같은 맥락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3점)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뒷면에 계속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옅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 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안에 (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 나님을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나)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 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 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 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에 ㉣모로 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중략)

“에이,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김 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홑눈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 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한 듯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에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 보았건만, 못 사 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 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 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세 살먹이)에게 죽을 사 줄 수도 있다. — 팔십 전을 손에 쥔 김 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13.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사건 전개가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이다.
- ② 작품 안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③ 작가는 당시 서구 문물의 유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다.
- ④ 행운과 불행이 교차되는 내용 전개를 통해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⑤ 주인공 김침지의 비속어 사용으로 인해 인물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14. (가)의 ㉠이 하는 역할로 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4점)

- ① 소설 전체에 어두운 분위기를 암시한다.
- ② 주인공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 ③ 주인공에게 다가올 불행한 결말을 암시한다.
- ④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알려준다.
- ⑤ 날씨의 사실적인 묘사로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15. (가)의 ㉡과 표현 방법이 같은 것은?(3점)

- ①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임의 침묵<한용운>
- ②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 ③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 낙화<이형기>
- ④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 즐거운 편지<황동규>
- 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혼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깃발<유치환>

16. (나)의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 ① ㉢ 달포-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 ② ㉣ 모로도-옆면으로도
- ③ ㉤ 조랑복-몸, 마음, 행동 따위가 튼튼하지 못하고 약함.
- ④ ㉥ 바루다-비뚤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바르게 하다.
- ⑤ ㉦ 푼푼하다-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돋는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였거든, 노르탕 탕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도 있대야 턱 밑에만 마치 술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 놓은 듯한 김 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게, 김 침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잔 빨리게.”

똥똥보는 말라깽이를 보던 말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집과 판판으로 연하고 짹짹하였다. ㉠김 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 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중략)

김 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려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봐라, 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뺀 다구를 꺾어 놓을 놈들 같으니.”

하고 치삼이 주워 주는 돈을 받아,

㉡ “이 원수엿돈! 이 육시를 할 돈!”

하면서 팔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짹하고 울었다.

(나) 김 침지는 연해 코를 들이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예끼 미친놈, 거짓말 마라.”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7학년도 11월 07일 1교시	출제자	송현호, 강아연, 이승진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빼들쳐 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하고 김 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운다.

치삼은 흥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기었다.

치삼의 잡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 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득의양양….

㉠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년이 밥을 죽이지. 인제 나한테 속았다, 인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먼네가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

하고 치삼이도 어떤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 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김 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으며,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다) 김 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 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 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려 든 것인데, 물을 길어 대고 한 달에 일 원씩 내는 터이다.(중략)

김 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 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 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 침지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 —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 내, 병인의 땀 썩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 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역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내어 호통을 쳤다.

“이년, (㉡)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밟시 왔다. 그러나 발길에 차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뭇등결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중략)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뻗뻗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 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17. <보기>의 소설의 소통 구조 중, (A)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바르게 감상한 학생은?(3점)

<보기>

현실

↓ (A)

작가 ⇄ 작품 (D) ⇄ 독자

(B) (C)

① 성수 : 이 작품은 산업화 시대 소외된 도시 빈민층의 빈곤한 삶이 잘 반영되어 있어.

② 수경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

③ 미나 : 아픈 아내에게 약도 못 사주는 김침지네의 가난한 상황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

④ 유정 :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어야겠어.

⑤ 민호 :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아픔이 이 작품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

18. (나)를 읽고 내용과 관련하여 인물의 심리를 추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① ㉠-김침지가 아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잊고 싶어함.

② ㉡-김침지가 가난과 돈에 대한 분노를 느낌.

③ ㉢-김침지가 아파서 누워만 있는 아내에게 화가 남.

④ ㉣-치삼이가 김침지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의아해함.

⑤ ㉤-김침지가 아내의 죽음에 대한 확신을 피하려함.

19. (다)의 ㉡와 ㉢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3점)

<보기>

㉡ 주야장천	㉢ 혈혈단신	㉣ 구곡간장
㉡ 불철주야	㉢ 허장성세	

① ㉡-a, ㉣-e ② ㉡-a, ㉣-d

③ ㉡-b, ㉣-d ④ ㉡-c, ㉣-e

⑤ ㉡-e, ㉣-a

20. (다)의 ㉡와 ㉢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3점)

① ㉡ : 음산한 분위기 조성, ㉢ : 가난함의 상징

② ㉡ : 아내에 대한 애정, ㉢ : 결말의 비극성 강조

③ ㉡ : 불길한 결말 암시, ㉢ : 아내에 대한 미안함

④ ㉡ : 하층민의 고달픈 삶, ㉢ : 암울한 시대적 상황

⑤ ㉡ : 아내에 대한 애정, ㉢ : 암울한 시대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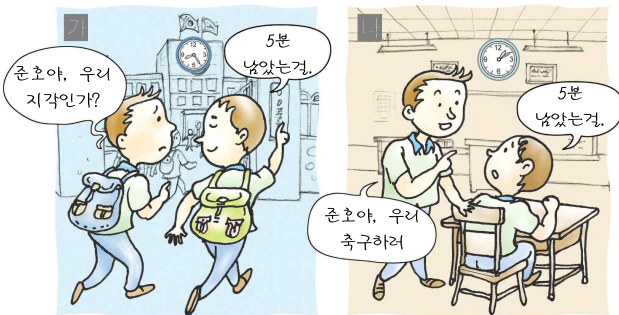
☞ 뒷면에 계속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다)



21. (가)에서 치과 의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2점)

- ① 이가 좀 시렸어요.
- ② 음식이 좀 짰어요.
- ③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 ④ 네, 이제 후식도 주세요.
- ⑤ 딱딱한 것은 잘 못 씹어요.

22. (가)~(다)에서 알 수 있는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2점)

- ① 말하는 이 ② 듣는 이
- ③ 시간과 장소 ④ 세대와 성별
- ⑤ 의도와 목적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은아버지: 쌀을 사서 우리 조카 맛있는 거 해 줘야지.
조카: 작은아버지, 쌀이 이렇게 많은데 또 사요?
작은아버지: 시골에서는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을 ‘쌀을 산다’고 한다.
조카: 도시에서 쌀을 산다고 할 때와는 뜻이 정반대네요.
작은아버지: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쌀을 통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
조카: 같은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네요. 그럼 농촌에서 주로 쓰는 말이 또 있나요?
작은아버지: 어디 보자. ‘김매기, 멍석, 삼태기, 왕겨’ 같은 말도 도시에서는 들어 보기 어렵겠지?

(나)

경선: 할머니, 저 가수가 요즘 잘나가요.
할머니: 어디를?
경선: 요즘 인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할머니: 그렇구나. 나는 지난번 잔치 때 네 아버지가 불렀던 민요가 더 좋지만.....
경선: 그때 찍은 영상을 담아서 구워 놓은 시디(CD)가 있는데 들어 드릴까요?
할머니: 시디를 구워? 그것이 뭇이길래 생선처럼 구울 수 있단냐?
경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 할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다)

상황 1

철수: 오늘 미팅이 있는데 같이 안 갈래?
로버트: 내가 가도 되는 거야? 뭘 준비해야 하는데?
철수: 하하하, 준비는 무슨. 편한 마음으로 와.

상황 2

로버트: 오늘 미팅이 있는데 너도 관심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했어.
철수: 정말? 언제인데?
로버트: 이따 7시까지 오면 돼.
철수: 그래, 재미있겠다. 7시까지 갈게.

2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가)에서 조카는 ‘쌀을 사다’를 ‘값을 치르고 쌀을 구입하다.’의 의미로 생각했다.
- ② (가)에서 작은 아버지는 ‘쌀의 사다’를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의 의미로 말했다.
- ③ (다)에서 로버트는 ‘미팅’을 ‘모임이나 회의’의 의미로 사용했다.
- ④ (나)에서 할머니는 ‘잘나가다’를 ‘인기가 많다’의 의미로 생각했다.
- ⑤ (다)에서 철수는 ‘미팅’을 ‘남녀 학생들이 사교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가지는 모임’의 의미로 사용했다.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7학년도 11월 07일 1교시	출제자	송현호, 강아연, 이승진		
		반 번호:	이름:		

24. (가), (나), (다)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옳은 것은?(2점)

- ① (가)-지역, (나)-세대, (다)-문화
- ② (가)-지역, (나)-문화, (다)-세대
- ③ (가)-문화, (나)-세대, (다)-지역
- ④ (가)-성별, (나)-문화, (다)-다문화
- ⑤ (가)-지역, (나)-성별, (다)-다문화

25. (나)를 읽고 다음 표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3점)

	경선이가 말한 의미	할머니가 생각한 의미
굽다	㉠	㉡

- ① ㉠-인기가 많다, ㉡-시디(CD)에 영상을 복제하다.
- ② ㉠-안에서 밖으로 자주 이동하다, ㉡-불에 익히다.
- ③ ㉠-불에 익히다, ㉡-시디(CD)에 영상을 복제하다.
- ④ ㉠-시디(CD)에 영상을 복제하다, ㉡-불에 익히다.
- ⑤ ㉠-인기가 많다, ㉡-안에서 밖으로 자주 이동하다.

26. 다음 중 담화와 맥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4점)

- ① 말의 의미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한 가지로만 풀이 된다.
- ②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같은 말이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 ③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에는 의도와 목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④ 의사소통을 할 때에 지역, 세대, 성별 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⑤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밀레종

선달 그믐밤이면 ‘제야의 종’이 울린다. 서울의 보신각에서도 울리고 경주 토함산 석굴암에서도 울린다. 제야의 종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것은 훌륭한 범종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양의 종은 서양종과 달리 육중한 나무 봉으로 몸체를 두드려 올리게 하여 ‘땡그랑땡그랑’ 하는 것이 아니라 ‘둥둥’ 하고 울린다. 그중 유독 우리 종은 맥놀이 현상의 긴 여운이 아름다워 음향학에서는 ‘한국 종’이라는 별도의 학명이 있다. 반세기 전에 주한 미군 라디오 방송은 전국 사찰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범종 소리를 녹음하여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담아 테이프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에밀레종을 비롯하여 이미 깨져 칠 수 없는 오대산 상원사 종 등 수십 개의 종소리가 들어 있는데 영어 해설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온다. “서양의 종은 귀에 들리고 한국의 종은 가슴 깊은 곳에 울린다.”

종은 형태도 형태이지만 역시 소리가 좋아야 한다. 우리 범종 중에서 최고의 명작은 통일 신라 때(771년) 주조한 높이 3.7미터, 무게 18.9톤의 ‘성덕 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이다.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장중한 소리이면서도 옥처럼 맑은 소리를 울려 내어 많은 공학자가 그 음향 구조의 신비를 밝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장무 박사는 종의 키와 폭의 비율이 $\sqrt{2} = 1.414$ 의 값에 가깝고, 당좌(봉이 닿는 자리)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라고 해서 야구에서 홈런 칠 때 공이 방망이에 맞는 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병호 박사는 종소리의 톤 스펙트럼을 분석한 다음 음색과 음질을 채점해 보니 다른 종들은 100점 만점에 50점대에 머무는데 에밀레종만은 86.6점이 나왔다고 했다.

무엇이 이런 신비로운 소리를 만들어 냈을까? 에밀레종 몸체에 새겨진 1,037자의 명문을 보면 ‘종소리란 진리의 원음(圓音)인 부처님의 목소리’라고 했다. 그런 종교하는 마음으로 에밀레종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몇 해 전부터 이 종을 더 이상 치지 않고 있다. 종은 쳐야 녹슬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때면 에밀레종 소리가 더욱 그리워진다.

27. 위 글과 관련하여 질문하거나 정리한 것 중에서 ‘읽기 전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3점)

- ① 동양의 종과 서양의 종을 비교하는 것을 보니 설명하는 글이겠네.
- ② 나도 땡땡거리는 서양종보다는 두웅두웅 울리는 우리나라 종소리가 좋더라.
- ③ 제목만 봐서는 에밀레종에 얽힌 전설을 다룰지, 에밀레종을 소개할지 잘 모르겠네.
- ④ ‘맥놀이 현상’이 여운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맥놀이 현상’은 뭘 말하는 거야?
- ⑤ 녹이 스는데도 종을 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야겠어.

28.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음향학에서는 ‘한국 종’이라는 별도의 학명이 있다.
- ② 우리 범종 중에서 최고의 명작은 성덕대왕 신종이다.
- ③ 선달 그믐밤이면 서울의 보신각종과 에밀레종이 매년 울리고 있다.
- ④ 많은 공학자가 에밀레종의 음향 구조의 신비를 밝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⑤ 에밀레종 몸체에 새겨진 1,037자의 명문을 보면 ‘종소리란 진리의 원음(圓音)인 부처님의 목소리’라고 했다.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아가, 읽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독자는 글의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읽은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를 읽는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의 줄거리나 주제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양치기 소년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양치기 소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도 한다. 또한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양치기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기도 하고, 양치기 소년이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 둔 어른들의 행위가 정당한지 따져 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읽기란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뒷면에 계속

(나) 앞에서 우리는 읽기가 단순히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구성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읽기 전이나 읽는 중, 읽은 후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글을 읽기 전에 독자는 자신이 그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책의 제목이나 차례, 도표, 삽화 등을 훑어보면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거나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미리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라) 글을 읽는 중에는 글 속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거나 자신이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는 것이 좋다. 나아가 글쓴이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해 보고,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면서 읽으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글의 성격이나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하고,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고 그 논리성과 타당성을 따져 가며 읽어야 한다. 그리고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장면이나 인물의 심리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감동을 느끼며 감상해야 한다.

(마) 글을 읽은 후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구조도를 만들어 보면서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글을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글쓴이의 견해나 관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견해와 관점에 견주어 글을 비판하거나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더 찾아 읽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되돌아본다. 독자는 이러한 읽기 과정을 통해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바) 지금까지 읽기의 본질, 과정과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글을 읽는 과정에서 앞에서 배운 읽기의 원리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글을 읽는 목적이나 상황, 글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읽기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을/를 통해 확장되고 창조될 수 있으므로, 이 말은 ‘나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낸다. 이렇게 창조해 낸 의미들이 하나씩 쌓여 가면서 우리의 (㉡)이/가 향상되고 세상을 보는 (㉢)도 넓어지게 된다. 우리는 읽기를 통해 성장하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29. 글 (바)의 ㉠,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3점)

- ① ㉠ - 읽기, ㉡ - 사고력, ㉢ - 안목
- ② ㉠ - 읽기, ㉡ - 창조성, ㉢ - 지식
- ③ ㉠ - 쓰기, ㉡ - 사고력, ㉢ - 안목
- ④ ㉠ - 생각하기, ㉡ - 지혜, ㉢ - 지식
- ⑤ ㉠ - 말하기, ㉡ - 정보, ㉢ - 사고력

30. 다음 <보기>가 들어갈 부분으로 옳은 것은?(3점)

예를 들어, 똑같이 ‘독도’ 라는 제재를 다룬 글이라 하더라도 독도의 역사를 설명하는 글인지, 독도를 지키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글인지, 독도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인지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 ① 글 (가)의 뒤 ② 글 (나)의 뒤 ③ 글 (다)의 뒤
- ④ 글 (라)의 뒤 ⑤ 글 (마)의 뒤

31. 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글을 ‘읽는 중’ 과정에서 할 일을 두 개 고르면?(4점)

- ①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②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어야 한다.
- ③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 ④ 글을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 한다.
- ⑤ 글 속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거나 자신이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32. 위와 같은 글의 종류를 읽을 때의 읽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등장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② 글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 ③ 글의 장면이나 인물이 심리를 자유롭게 상상하며 읽는다.
- ④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⑤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고, 글의 논리성과 타당성을 따져 가며 읽는다.

33. (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쓰인 것은?(3점)

- ① 곤충은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하지만 사자는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 ③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라는 말이 있다.
- ④ 야구와 축구는 공을 가지고 여럿이 한 팀이 되어서 하는 스포츠라는 공통점이 있다.
- ⑤ 진사회성 동물의 사회에서는 어느 한 개체만이 자식을 낳고, 다른 개체들은 그 개체가 낳은 자식을 공동으로 기른다. 진사회성의 좋은 예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곤충이 바로 잎꾼개미이다.

-----<끝>-----

※ 선택형 33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기말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33문항)	100

정답표

문 항	배점	정답	복수 구분
1	3	2	
2	4	2,3	AND
3	2	3	
4	3	1	
5	2	5	
6	4	1,2	AND
7	3	5	
8	4	1,5	AND
9	3	1	
10	4	5	
11	2	2	
12	3	4	
13	3	4	
14	4	1,3	AND
15	3	4	

문 항	배점	정답	복수 구분
16	3	3	
17	3	2	
18	3	3	
19	3	5	
20	3	2	
21	2	1,5	AND
22	2	4	
23	3	4	
24	2	1	
25	3	4	
26	4	2,3	AND
27	3	3	
28	3	3	
29	3	1	
30	3	4	

문 항	배점	정답	복수 구분
31	4	2,5	AND
32	3	4	
33	3	5	
34	이	하 여	백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